대못상자 믿음

(눅7:36-50)

36.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37.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39.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4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44.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45.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47.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대못상자 믿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요즘 독도 문제 때문에 일본과 우리 한국정부 간의 마찰이 아주 극심합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입장을 가능한 한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참 일본이라는 나라가 특이

한 나라에요.
특별히 저는 독일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로서 독일과 일본을 비교해 보면 너무 다릅니다.
독일은 뭘 그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2차 대전을 통해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그 죄의 흔적을 남기고, 유대인수용소 같은 것들을 다 남겨두고 보존하면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계속 변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럽국가의 고속도로가 다 통행료를 받는데, 독일만 돈을 안 냅니다.
그래서 모든 유럽의 교역에 사용되고 있는 트럭들이 독일을 통과해서 다른 나라로 흩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런 죄과를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변조를 하고…
독도가 어떻게 자기네 땅입니까?
16세기 동국여지승람, 그게 문제가 아니라 5세기에 벌써 독도가 한국 땅인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유관순 누나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유관순 누나가 당한 고문의 이야기가 이곳저곳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뭐 성고문은 기본이고, 고춧가루를 탄 물을 코에 집어넣는다든지 펜치로 손톱을 뽑는다든지, 손톱 밑에 대바늘을 집어넣어 쑤신다든지, 이런 모든 고문들이 소개되는데, 그 중에 대못상자라는 고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상자에 대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앉아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하루 이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도 고통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머리끝부터 사지에 대못이 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자입니다.
하루 이틀이고 잠을 잘 수도 없고 밥도 주지 않고 그 상자에 넣어둘 때 사람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일본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려니 하고 냉정하게 정부에서 잘 대처해주기를 바라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은총과 긍휼을 빌 뿐입니다.
이 대못상자가 비유적으로 반드시 믿음에 필요합니다.
일본사람들이 고문으로 사용한 것은 정말 비인간적인 극악함이지만, 비유적으로 신앙이 대못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면 올바른 믿음의 마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시몬이라고 이름 하는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가서 앉으셨을 때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이 식사할 때 앉는 자세는 왼쪽으로 왼손을 괴고 비스듬하게 눕습니다.
누워서 오른손으로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누워계실 때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옥합을 붓는데, 이 옥합을 부은 사건이 4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세 복음서는 모두가 예수님 공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 중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만 오늘 사건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애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공생애 기간에 갈릴리를 두 번째로 오셔서 전도여행을 하고 계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먼지가 가득 묻은 발에 눈물을 떨어뜨리고 긴 머리카락으로 닦으면서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입 맞추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단어로 살펴보자면 한번 입을 맞추고 끝난 게 아니라 향유를 붓고는 발을 붙들고 계속 입을 맞추면서 울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지금 이 가버나움 동네에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죄인인 이 여자를 알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저런 접촉을 그대로 허용하고 있는가? 하고 의심할 때 예수님께서 그 의심을 꿰뚫어보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고, 여인에게 죄 사함과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랑을 많이 하는 자가 많이 죄 사함 받고, 많이 죄 사함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선후의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죄 사함과 사랑의 크기가 비례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이 참으로 특이하다는 얘기에요.
죄 사함과 구원이라는 얘기는 지극히 종교적인 색채의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죄 사함과 구원이라는 종교의 가장 우선되는 종교적 은총이 전혀 비종교적인 너무나 사적인 한 여인의 애정표현 뒤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종교적인 마음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독교가 유일한 참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종교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기독교는 참 종교이고 유일한 종교인데, 그 기독교의 교주이신 예수님께로 나가는 마음은 종교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종교적인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인에게 다 공통되어 있습니다.
절대자, 신(神), 무한한 힘을 가진 존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생활 중에서 나타나는 고민과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서 이 세상에서 행복을 완성하려는 것이 종교심리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신과 절대자와 무한한 힘을 갖고 있는 존재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게 바로 종교적인 마음이요, 종교심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종교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 여인처럼 지극히 사적이고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행동,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부어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내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지극히 사적이고 지극히 애정과 존경의 표현일 뿐, 전혀 정형화 된 종교적 의식이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 여인이 보여주는 믿음이 바로 대못상자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대못상자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죄 사함과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이 대못상자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여자가 가버나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죄인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사회, 선민의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과 율법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사회생활이 인도되어지고 있는 이런 사회 안에서 죄인이라는 것, 특히 여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창녀이거나 아니면 성적인 이탈행위를 통하여 붙여지게 된 이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창녀라는 직업적인 단어라기보다는 이렇게 죄인이라고 불렸다는 것은 후자에 속하는 여자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 사회 안에서 이 여인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가버나움 전체가 이 여인에게 대못상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여인을 보는 모든 시선은 이 여인에게는 대못이었습니다.
칼이었고 창이었고 가시이고 대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버나움 사회를 떠나서 그 옛날에 여자 혼자 어디에 가서 새로 삶을 개척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가버나움 사회에서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고 있고 자기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죄인임을 감수하면서 사는데, 어디를 가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를 향하여 가시가 되어서 가버나움 전체가 이 여인에게 대못상자처럼 되었다는 얘깁니다.
대못상자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여인, 이 여인의 마음이 대못상자 안에 갇혀있으므로 그 누구에게도 향하여 마음이 움직여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좋아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시선이 가시가 되는 바람에 사람과의 만남이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대못상자 안에서.

혈루병 여인의 경우는 그 사람이 행위적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부정해서 사람과의 접촉을 할 수 없었지만 마음이 더러워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죄를 짓고 그리고 마음이 모든 사람의 가시 같은 시선에 눌려서 찔리면서 살고 있었을 때에…
바로 앞에 나왔습니다, 누가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어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의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도 안 받아들이고 나도 안 받아들이는데, 나를 안 받아들인 이유는 먹고 마시면서 죄인들의 친구였다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인의 친구'라는 이야기를 이 여인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대못상자 안에 갇혀서 꼼짝도 못했던 이 여인의 마음이 죄인인 자기를 바라볼 때 가시로 바라보지 않고 칼로 바라보지 않고, 창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 찌르는 시선이 아닌 예수님에게로 가서 그동안 모아져 있던 마음, 그저 누구라도 이 여인을 따뜻하게 받아주었더라면 그 사람에게 흘러들어갔을 텐데, 그 누구에게도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모아져 있던 모든 마음이 예수님 한분에게로 폭발적으로 쏟아져 부어 들어갔다는 얘깁니다.
향유를 부을 때 향유뿐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이 쏟아져 부어 들어갔던 것이에요.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죄 사함과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은 비가 오면 국지성 호우로 웬만한 이슬비나 가랑비는 오지를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강남역 부근이 물에 잠기기도 했었는데, 그 이유를 뉴스에서 말하는데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도심이 전부 아스팔트로 깔려있기 때문에 아스팔트가 없을 때 비가 오는 경우에는 40%가 그냥 지면을 통해서 아래로 흘러들어가 흡수돼버린다고 합니다.
나머지 60%만 비탈길을 따라서 흘러내리게 되어 있는데, 다 아스팔트로 깔리는 바람에 이 40%의 물이 보태져서 한 곳으로 모아져 있고, 또 하수도를 따로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하수도에 집중되어서 모아져 들어오면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깁니다.
물이 분산되지 않고 모아졌다는 얘기에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 모든 사람의 시선이 가시처럼 대못이 되어서 자기를 찌르고 있는 이 사회에서 그 누구를 향해서도 마음이 나아갈 수가 없이 모아져 있던 이 마음이 죄인의 친구라고 별명이 붙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이 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게 돈을 주세요, 내게 지위를 회복해주세요' 아니면 인간이 갖고 있는 고민,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한 이 마음에 장애로 작용하는 것들이 있을 때 종교의 힘을 빌어서 극복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여인 같으면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의 시선, '이 시선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하고 나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느꼈던 이 세상 삶의 불행을 가지고 나와서 불행의 이유를 해소시켜달라고 한 것이라면 종교심리인데, 이 여인은 그동안 그 어떤 누구에게도 나갈 수 없었던 마음이 모아져 있다가 강남역에 내린 비처럼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 쏟아져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께 세상에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 장애물들을 제거해주세요 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쏟아져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대못상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죄인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사회 모두가 다 이 여인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보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대못이 되었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누구에게도 향해서 나갈 수 없었던 마음이 모아져 있다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의 예수님을 향하여 이 마음이 쏟아져 들어가면서 이 여

인에게 죄 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 심리로 접근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 계신 상태에서 내가 부모 되고, 회사직원 되고, 사업가 되어서, 그래서 느껴지는 이 세상의 장애와 고민들을 이제 예수님을 향해 나가서 예수님께 해결 받는 이건 종교에요.
그러나 종교적 심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대못상자 안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못하고 마음을 모아두고 있다가, 마음의 한 점까지 모두다 예수님께로 쏟아낼 때에 죄 사함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이런 대못상자의 믿음을 이룰 수 있을까?
나는 직장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나를 받아들이는 가족들이 있고 친척이 있고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나를 대못을 가지고 찌르듯 한 시선으로 봅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모든 유대사회에서 존경의 시선을 받고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체해버립니다.
종교적인 인물들로써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체되어 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지라도 나는 나를 대못상자에 넣어야 합니다.
대못상자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죄인이라고 나를 인정하고 넣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고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좋아하는 시선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선을 거부하고 그 시선을 따라 내 마음을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강남역에 쏟아졌던 빗물처럼 다 모아져야 돼요.
어디로도 스며들어가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시선을 거부하고 죄인임을 알고 내 마음을 대못상자에 집어넣는 겁니다.
내 마음을 대못상자에 집어넣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자라고 인정할 때 그 모든 마음이 주님 따라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마음을 완전히 다 모아서 하나님아버지께로 드리지 않는 한 믿음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대못상자의 믿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마치 그들의 시선이 대못인 것처럼 절대로 내 자신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십자가를 보면서 발견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누가 나를 인정하고 있더라도 그 시선을 거부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좋아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그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죄인처럼 대못상자의 믿음을 가지고 온통 마음을 주님과 함께 주님 따라 아버지께로 다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시시각각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과 죄 사함의 선언을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을 대못상자로 여기며 살 수 밖에 없었던 죄인인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모아진 마음을 온통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아버지께로 다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